

원조교제 공갈·성매매 강요·만능키로 상습 절도

무섭다, 어른 뺨치는 청소년 범죄

갈수록 집단화·지능화·홍포화

광주·전남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집단화·지능화·홍포화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후배의 원조교제 현장을 덮쳐 상매수 납성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정모(16)양 등 10대 3명을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양 등은 전날 밤 11시30분께 광주 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서 후배 B양(15)이 '운모(29)씨와 원조교제를 한다'며 B양과 윤씨가 함께 투숙한 객실 출입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윤씨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짠 뒤 상매수 납성 5명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원조교제 역할과 협박하는 역할을 나눈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 상대를 물색하는 등 어른 뺨치는 범행 수법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신의 원룸으로 친구를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문모(16)양 등 10대 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우암동 모 원룸으로 친구 Y(16)양을 불러낸 뒤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오다 경찰에 적발됐

다.

학교 선배들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납성 7명을 원룸으로 유인한 뒤 Y양과 성관계를 갖게하고 5만~10만원의 화대비를 챙겼다. 이들은 또 Y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10여 일간 감금·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P(15)양 등 여중생 5명이 사프렌술을 심통으로 만능열쇠를 만든 뒤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오다 경찰에 들미가 잡혔다.

이들은 사우나에서 4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는 등 여중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

담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청소년 범죄자 수는 9천390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2007년(8천322명)에 비해 16.9%(1천358명)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25.7명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3천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2천938명) ▲강도(49명) ▲성폭행(33명) ▲방화(18명)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성인 범죄로 꼽히던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율동에서도 지난 1월 한 달동안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이 430명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산 증심사 입구 도로변 외래 수종 벌목이나 보존이나

"또 다른 자연훼손" 벌목 일단은 유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하나로 무등산 증심사 입구 상가 단지 외곽에서 외래 수종을 제거하려던 광주시도시공사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을 단지 외곽 수종이 이유로 베어내는 것은 또 다른 자연훼손이라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시도시공사가 외래 수종 방치 방침을 밝힌 직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수형이 좋고 잘 자란 나무들을 자생 수종이 아니라 이유로 베어내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 환경녹지국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25일 현장 답사를 벌인 결과 외래

미술품이나 도로변의 큰 나무들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보고 벌목을 유보토록 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당초 24일부터 증심사 입구 상가와 도로변에 있는 리기다소나무와 포플러 등 1천 그루의 외래 수종을 벌채하고 무등산 자생 수종인 참나무와 소나무 4만8천그루를 심을 예정이었다. 외래 수종이 무등산 고유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조경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 벌목한 나무는 현장에서 잘게 부숴 새로 조성될 조림지에 비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외래 수종을 놓고 벌목이나 보존이냐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측에 일단 벌채를 보류토록 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U대회 광주 유치 "선서"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25일 광주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기원 및 광산구민 결의대회'에 참여한 범시민 자원단원들이 U대회 유치 기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시민

'사람 잡은' 병영체협 수련원 대표 벌금형

법원이 지난해 장성군내 모 수련원에서 중학생이 병영체협 도중 익사한 것과 관련, 수련원 대표와 수련 위탁업체 대표, 교관 등 3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25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련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 조모(64)씨와 위탁교육업체 대표 한모(40)씨, 교관 김모(27)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방법 CCTV 광주 95대...전국 1%

시·도 평균 6분의 1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광주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수는 전국의 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방범용 CCTV는 총 9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별 평균 CCTV 수(547대)의 6분의 1 수준으로, 전국 CCTV(8천761대) 수의

1.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43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828대) ▲경북(945대) ▲전남(786대) ▲대구(662대) ▲충남(623대)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또 인구를 감안한 CCTV 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광주에 설치된 CCTV 1대당 인구 수는 1만4천979명으로, 전국 평균(5천654명)보다 세 배 가량 많았다. CCTV 1대당 인구분포가 높을수록 각 CCTV가 담당해야 할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CCTV 1대당 인구가 6만2천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만966명) ▲울산(3만5천871명) ▲대전(1만5천925명) 등의 순이다. 전남은 2천441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의 CCTV 수(95대)는 재정부담도가 비슷한 대구(662대)와 비교해서도 7분의 1 수준에 그쳐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범인들 살인사건 현장 왜 불 지르나

지문·혈흔 등 증거 감추기

과학수사 기법 발달 '완전 범죄'는 불가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범행 후 현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25일 현재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5건의 살인사건 중 범행 후 방화는 2건이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범행 직후 곧바로 끔찍한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불을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범행현장에 지문·족적·혈흔·머리카락·타액 등 생물학적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난 23일 일어난 '광주 세모자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최모(29)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불을 냈다"고 방화 동기를 말했다.

지문·족적·혈흔 등 생물학적 증거는 불에 타 거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 보

이지 않는 극소량의 혈흔을 찾을 때 이용하는 '루미놀 시험'(Luminol test·혈흔반응검사) 등 과학 수사기법이 날로 진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루미놀 시험은 과산화수소수 등을 혼합한 물질을 뿌려주면 혈흔의 경우 혈색소 '헤민'(Hemin)의 촉매 작용으로 강한 화학적 발광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실험 방법. 시험 결과 혈흔이 검출되면 유전자 분석으로 누구의 유전자형인지 알아낼 수 있다.

방화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신 이불에 걸 경우 그만큼 경찰의 사인 규명이 늦어지므로 도주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과대경 교수는 "방화는 범인이 살인 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은폐 수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 보

최경호기자 golee@kwangju.co.kr

김 양식장 어민 실종

김 양식장에 일하러 나간 어민이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아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신안군 팔금면에서 김모(57)씨가 김 양식장을 둘러보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 다이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해상의 물살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안=조관필기자 wncho@

화장실 간 새 마트 문 닫혀 119 출동

○마트 화장실에 들렀던 40대 여성이 직원들이 되

○25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마트에서 김모(여·40)씨가 서터 안쪽에 갇혀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

○김모씨는 신고를 받고 담당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마트 직원을 불러 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김씨를 40여 분만에 구출.

○구조대 관계자는 "마트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씨가 잠시 마트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그 사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대한민국 No.1" 동부고시학원과 함께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www.dongbugosi.co.kr

희망프로젝트 특별이벤트

2008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 동부고시학원 진종규(곡성군 근무) =

이벤트 1. 교재가 공짜!!
9급공무원 전직렬 선택5권 20만원 상당

이벤트 2. 수강료 할인!!
9급공무원 전직렬 2개월완성 30만원

이벤트 3. 정독실 할인!!
종합반(이론반/문제풀이반), 단과반 4만원

본 이벤트는 2월 28일 까지 신규종합반(이론/문제풀이) 접수자에 한합니다.

개강: 3월 2일 [이론반/문제풀이반]

빠른 합격 동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 233-0509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속원 김갑순 공인중개사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전화: 062)222-8446 H.010-3666-8448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소매지 대/건	소매지 대/건	소매지
호남동 74/74	정성산역 848/41	명동
우산동 172/1432	신촌동 51/63	금호동
오산동 281/231	중흥동 39/47	금호동
남구동 290/82	중흥동 48/53	용곡동
오산동 50/52	신기동 70/97	일곡동
수기동 50/103	광림동 24/29	화순동
안산동 362/994	영봉동 39/47	내림동
자석동 151/213	불산동 89/35	유신동
	불산동 44/38	문흥동
	정성동 42/48	봉산동
	정성동 60/32	봉산동
	백운동 103/64	봉산동
	두암동 43/50	봉산동

▶근린상가	▶다세대	▶토지
소매지 면적/평	소매지 면적/평	소매지
대림동 11	화산동 17.8	백운동
중앙동 24.7	불산동 18.1	내림동
중앙동 60.7	내림동 14.8	내림동
동남동 183	내림동 18	정성동
화정동 9.4	내림동 19.7	영봉동
마곡동 48.9	중흥동 18.2	정성동
신성동 29.8		

▶근린주택	▶오피스텔	▶공장
소매지 대/건	소매지 면적/평	소매지 대/건
신기동 82/38	신안동 6.8	신수동
불산동 76/35	차정동 54	화순동
중흥동 69/56	수기동 9.1	용곡동
유신동 43/42	차정동 11.6	정성동
남구동 344/184	불산동 13.7	용곡동

▶상점	▶소문	▶공업	▶지식	▶차정	▶실업
대536/21309	대802/21387	대503/21412	대151/21213	대102/21254	대118/21285
감정가52억	감정가165억	감정가16억8800만	감정가16억5400만	감정가14억2000만	매매가14억7000만
최저가138억	최저가145억	최저가16억7700만	최저가12억8000만	최저가12억3320만	고용면적, 대로면
사무나, 레스토랑	사무나, 임대업	공장/병동공기내	병, 의원진료, 대로면	로면티유, 4층	병원, 요양원적합